

구덩이와 진자

The Pit and the Pendulum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2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Pit and the Pendulum" (1842)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고문자들의 오랜 광기를,, 무도한 무리가 무고한 피로도 채워지지 않은 채 끝없이 길러 왔구나. 이제 조국은 구원받았고 무덤의 입구도 허물어졌으니, 참혹한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삶과 구원이 펼쳐지리라.

[파리 자코뱅 클럽 건물이 있던 자리에 세워질 시장의 정문을 위해 지어진 4행시]

나는 병들었다.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괴로움에 죽음에 이를 지경이었다. 마침내 결박이 풀리고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형 선고, 그 공포스러운 사형 선고가 내 귀에 들린 마지막 또렷한 음성이었다. 그 후로 종교재판관들의 목소리는 마치 꿈결처럼 모호한 웅성거림으로 뒤섞여 들렸다. 그 소리는 내 영혼에 무언가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했는데, 아마도 물레방아의 덜컹거리는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느낌은 잠시뿐이었고,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동안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하지만 얼마나 끔찍하게 왜곡되어 보였던가! 검은 옷을 입은 재판관들의 입술이 보였다. 그 입술은 내가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종이보다도 더 하얗게 보였고, 기괴할 정도로 얇았다. 인간의 고통을 엄격히 경멸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서린 탓에 그 입술은 더욱 얇게 느껴졌다. 내게는 운명과도 같은 그 판결들이 여전히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입술이 치명적인 언사를 내뿜으며 뒤틀리는 것을 보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음절을 만드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뒤이어 아무런 소리

도 들리지 않자 나는 몸서리를 쳤다. 또한 정신이 혼미해진 공포 속에서, 방 벽을 감싸고 있는 검은 휘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잠시 보기도 했다.

그러다 내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일곱 개의 긴 양초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 양초들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줄 희고 가냘픈 천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영혼에 지독한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마치 전기 배터리의 전선에 닿은 것처럼 온몸의 신경이 떨려왔다. 천사 같던 형상들은 머리에 불꽃을 이고 있는 무의미한 망령으로 변했고,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마치 풍성한 음악의 한 음표처럼 무덤 속에는 얼마나 달콤한 안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생각은 부드럽고 은밀하게 다가왔으며,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그러나 마침내 내 영혼이 그 생각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하려던 찰나, 재판관들의 모습은 마치 마법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긴 양초들도 허공 속으로 가라앉듯 사라졌고, 불꽃은 완전히 꺼져 버렸다. 이윽고 칙흑 같은 어둠이 엄습했다. 모든 감각은 마치 영혼이 하데스로 미친 듯이 추락하는 것처럼 집어삼켜지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정적과 고요, 그리고 밤만이 온 우주를 채웠다.

나는 혼절했었다. 하지만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의식의 파편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정의하거나 묘사하려 들지는 않겠다. 다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깊은 잠 속에서도 아니었다. 섬망 상태에서도, 혼절한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아

니었다. 무덤 속에서조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에게 불멸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어떤 꿈이 쳐놓은 가느다란 거미줄을 끊어낸다. 하지만 그 거미줄이 아무리 연약했다 한들, 깨어난 직후에는 꿈을 꾸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혼절했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올 때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정신적 혹은 영적인 감각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감각 단계다. 만약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단계의 인상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인상들은 저 너머의 심연을 말해주는 웅변적인 기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심연이란 대체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 심연의 그림자를 무덤의 그림자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른 그 인상들이 비록 원할 때마다 떠오르지 않는지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경탄케 하지는 않는가?

한 번도 혼절해 본 적 없는 사람은 타오르는 숯불 속에서 낫선 궁전과 기묘하게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슬픈 환영이 허공을 떠다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처음 맡아보는 꽃의 향기에 깊이 침잠하지 못하며, 이전에는 결코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어떤 음악적 선율의 의미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도 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을 되살리려 수없이 애쓰고 깊이 고민했다. 영혼이 빠져든 듯한 그 허무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 과

정에서 성공을 꿈꾸던 순간도 있었다. 아주 짧은, 정말 찰나와도 같은 순간들이었다. 훗날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돌아보니, 당시의 기억은 오직 의식을 잃었던 그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파편들이었다.

그 기억의 그림자들은 희미하게 무언가를 말해준다. 커다란 형체들이 나타나 나를 들어 올리더니, 아무 말 없이 아래로, 아래로, 끝도 없이 내려갔다. 그 하강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현기증이 몰려올 정도였다. 또한, 심장이 비정상적일 만큼 고요하게 멈춰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속에서 막연한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나를 옮기던 자들—그 소름 끼치는 행렬이—끝이 없는 심연의 한계를 넘어 내려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 잠시 발걸음을 멈춘 것만 같았다. 그 뒤로는 그저 평평하고 축축한 감각만이 떠오른다. 그리고 모든 것은 광기로 변한다. 금기된 영역을 헤집고 다니는 기억이 부리는 광기 말이다.

갑작스럽게 영혼 속에 움직임과 소리가 되살아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귓가에는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다 모든 것이 백지처럼 사라지는 정적이 찾아왔다. 다시 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촉각이 느껴졌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 뒤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살아있다는 의식만이 남았는데, 이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 돌연 생각이 떠올랐다. 몸서리쳐지는 공포가 엄습했고,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정신을 잃고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들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일었다. 그러다 영혼이 급격히 깨어나며 몸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이제야 재판의 과정과 재판관들, 검은색 휘장, 선고, 병세, 그리고 기절했던 순간들이 온전한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훗날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어렵פות이 떠올릴 수 있게 된 그 모든 일들을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몸이 묶이지 않은 채 등을 대고 누워 있다는 사실만 느껴졌다.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축축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목직하게 닿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필사적으로 상상하며 그 상태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주변에 무엇이 있을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까 봐 겁이 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 봐, 그 막막함이 두려워 몸서리쳐졌다.

결국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광기 어린 절박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급히 눈을 떴다. 그러자 최악의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영원한 밤과도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어둠의 밀도가 너무나 강렬해서 나를 짓누르고 질식시키는 듯했다. 공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누운 채,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종교재판소의 절차를 떠올리며,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나의 상태를 추론해 보려 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그로부터 꽤 긴 시간이 흐른 듯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소설 속 이야기와는 달리, 죽었다는 가정은 실제 생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보통 '아우토다페(autos-da-fe)'에서 처형된다. 내가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날 밤에도 처형식이 열렸다. 그렇다면 나는 다음 희생자가 될 때까지, 즉 몇 달 뒤에나 열릴 다음 처형을 기다리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즉각 들었다. 지금 희생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톨레도의 모든 사형수 감옥과 마찬가지로, 나의 감옥 역시 바닥이 돌로 되어 있었고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도 아니었다.

공포스러운 생각이 갑자기 엄습하자 심장이 요동치며 피가 거세게 몰려들었다. 나는 잠시 동안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려왔다. 나는 팔을 사방으로 미친 듯이 휘저으며 주변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혹여나 무덤 벽에 부딪힐까 두려워 한 걸음조차 떼기가 무서웠다. 모공마다 식은땀이 터져 나왔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굵게 맺혔다.

기다림의 고통은 마침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눈은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혹시라도 희미한 빛줄기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애를 썼다. 여러 걸음을 나아갔지만, 여전히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공허뿐

이었다.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였다. 적어도 내 운명이 가장 끔찍한 결말은 아닌 듯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던 중, 톨레도의 공포에 관한 수많은 막연한 소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파고들었다. 지하 감옥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고 들었다. 평소에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 치부해 왔으나, 그 내용은 너무나 기괴하고 끔찍해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조차 어려웠다. 나는 이 어두운 지하 세계에 버려져 굶어 죽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두려운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내 재판관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말이 죽음일 것이라는 사실, 그것도 평범한 죽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것은 오직 죽음의 방식과 그 시간뿐이었다.

뺨은 손끝에 마침내 단단한 장애물이 걸렸다. 돌을 쌓아 만든 벽인 듯했다. 벽은 매우 매끄러우면서도 미끈거렸고, 차가웠다. 나는 옛이야기 속에서 느꼈던 그 특유의 불길함을 품고, 아주 조심스럽고 경계하며 벽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벽이 너무나 일정하게 이어져 있어서, 벽을 따라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내가 출발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방식으로는 지하 감옥의 크기를 가늠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종교재판소의 심문실로 끌려올 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찾았다. 하지만 칼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옷은 이미 거친 서지 천으로 만든 가운으로 바뀌어 있었다. 벽의 아주 작은 틈새에 칼날을 끼워 넣

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표시해 두려 했던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다만 혼란에 빠진 내 정신 상태에서는 처음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나는 가운의 밑단을 조금 찢어낸 뒤, 벽과 직각이 되도록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 감옥 주위를 더듬으며 나아가다 보면,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반드시 이 천 조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감옥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내 몸 상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바닥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한참을 비틀거리며 나아가던 나는 결국 발을 헛디뎈 넘어지고 말았다. 극심한 피로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누워 있는 사이 곧 잠이 밀려왔다.

잠에서 깨어나 팔을 뻗어 보니, 곁에 빵 한 덩이와 물이 담긴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이런 상황을 깊이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저 허겁지겁 먹고 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감옥 안을 돌기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헤맨 끝에 마침내 그 서지 천 조각을 찾아냈다.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 걸은 거리는 쉼두 걸음이었고, 다시 걷기 시작해 천 조각에 다다를 때까지 마흔여덟 걸음을 더 걸었다. 결국 총 백 걸음을 걸은 셈이다. 1야드를 두 걸음으로 계산하면, 이 지하 감옥의 둘레는 50야드 정도 될 것이라 짐작했다. 다만 벽면이 꺾인 곳이 많아 감옥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이곳이 지하 묘실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거의 없었다. 아니, 확실히 기대하는 바도 없었다. 그저 막연한 호기심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을 뿐이다. 나는 담벼락을 벗어나 울타리 안쪽 구역을 가로질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극도로 조심하며 발을 뗏다. 바닥이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으나, 미끄러운 점액질 때문에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윽고 용기를 내어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댈고, 최대한 직선으로 가로지르려 애썼다. 그렇게 열 걸음에서 열두 걸음쯤 나아갔을 때였다. 찢어진 내 옷자락 끝부분이 다리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나는 그 옷자락을 밟고 그대로 얼굴부터 바닥에 세게 고꾸라졌다.

넘어지는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탓에, 나는 곧바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그 사실이 내 주의를 끌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내 턱은 감옥 바닥에 닿아 있었으나, 입술과 머리 윗부분은 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동시에 이마에는 축축한 기운이 서린 듯했고, 썩은 버섯에서 나는 듯한 기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팔을 뻗어 보았다. 그러다 내가 원형 구덩이의 바로 가장자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물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당시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 바로 아래의 석조 벽을 더듬다가 작은 돌 조각 하나를 떼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심연 속으로 떨어뜨렸다. 돌 조각이 아래로 떨어지며 구덩이 벽면에 부딪히는 소리를 몇 초 동안 귀 기울여 들었다. 마침내 돌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뒤이어 커다란 울림이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문을 급히 열었다가 다시 닫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줄기가 번쩍이며 나타났다, 이내 다시 사라졌다.

나를 기다리던 파멸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그 적절한 사고에 스스로 감사했다. 만약 한 걸음만 더 내디댈더라면, 세상에서 내 모습은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간신히 피한 그 죽음은, 내가 종교재판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저 허무맹랑하고 가벼운 전설로만 치부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종교재판소의 폭정에 희생된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 육체에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정신을 짓밟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죽거나. 나는 후자의 희생양으로 낙점되어 있었다. 오랜 고통에 시달린 탓에 내 신경은 이미 다 끊어질 대로 끊어져 있었다. 내 목소리조차 들으면 몸을 떨 정도로 망가진 나는, 나를 기다리는 그 고문법에 아주 적합한 제물이 되어 있었다.

사지가 사정없이 떨렸다. 나는 벽을 더듬어 간신히 몸을 옮겼다. 차라리 벽에 기대어 죽음을 맞이하리라 다짐했다. 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상상력이 자극되자, 지하 감옥 곳곳에 수많은 구덩이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이 온전했다면 저 심연 중 하나로 몸을 던져 고통을 즉시 끝낼 용기라도 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겁쟁이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 구덩이에 대해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 구덩이가 설계한 가장 끔찍한 계획은, 희생자를 단숨에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건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이전과 마찬가지로 곁에는 뽕 한 덩이와 물병이 놓여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와 나는 물병에 든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물에 약이라도 탄 것이 분명했다. 물을 마시자마자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잠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기괴하고도 유황 빛을 띠는 광채 덕분에 감옥의 크기와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크기를 나는 완전히 잘못 짐작하고 있었다. 벽면 전체의 둘레는 25야드를 넘지 않았다.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몇 분 동안이나 쓸데없는 고민에 빠졌다. 참으로 헛된 수고였다! 나를 둘러싼 이 끔찍한 상황에서, 고작 지하 감옥의 크기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하지만 내 영혼은 사소한 것에 광적으로 집착했고, 나는 내가 왜 측정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려 애쓰며 정신을 쏟았다.

마침내 진실이 번뜩이며 머릿속을 스쳤다. 처음 탐색을 시작했을 때, 나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발걸음을 선두 번이나 켜다. 그렇다면 쓰러진 지점은 그 서지 천 조각에서 한두 걸음 이내였을 것이고, 사실상 나는 이미 지하실의 둘레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았던 셈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이 들었다. 깨어난 뒤에는 아마도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테니, 실제 둘레보다 거의 두 배는 더 길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

이 혼미했던 탓에, 내가 왼쪽 벽에서 탐색을 시작해 오른쪽 벽에서 끝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 역시 감옥의 형태를 오해하고 있었다. 손을 더듬어 가며 벽을 짚어보니 모서리가 여러 군데 느껴졌고, 나는 그 때문에 이곳이 매우 불규칙한 구조라고 단정 지었다. 무기력이나 잠에서 깨어난 사람에게 완전한 어둠이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강력할 줄이야! 알고 보니 그 모서리들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파여 있는 몇 개의 얇은 흠이나 틈새에 불과했다. 감옥의 전체적인 모양은 정사각형이었다. 석조물인 줄 알았던 벽은 사실 거대한 철판이나 다른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판과 판 사이의 이음매가 마치 모서리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금속으로 된 이 폐쇄된 공간의 표면에는 수도사들의 해골 숭배 관습이 만들어낸 온갖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문양들이 거칠게 그려져 있었다. 해골 형상을 한 위협적인 악마의 모습과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형상들이 벽면 전체를 뒤덮어 벽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 괴물 같은 형상들의 윤곽은 꽤 또렷하게 보였으나, 색채는 마치 습한 공기 때문에 변색된 듯 바래고 흐릿했다.

그제야 나는 바닥이 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바닥 중앙에는 내가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거대한 원형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 감옥 안에 그런 구덩이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흐릿하게, 그리고 아주 어렵사리 목격했다. 잠든 사이 나의 상태가 너무도 처참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낮은 나무 틀 같은 곳 위에 대자로 누워 있었다. 몸은 말 안장 끈과 비

슷한 긴 가죽 끈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끈은 내 팔다리와 몸을 여러 번 휘감고 있었고, 오직 머리와 왼팔 정도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그나마도 온 힘을 다해야만 바닥 옆에 놓인 흙그릇에 담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곁에 있던 물병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는 공포에 질렸다. 공포라고 말하는 이유는, 참을 수 없는 갈증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일부러 이 갈증을 부추기려 한 모양이었다. 그릇에 담긴 음식은 자극적인 양념이 잔뜩 버무려진 고기였으니까.

고개를 들어 감옥의 천장을 살폈다. 천장은 머리 위로 30~40피트 정도 높이 떠 있었고, 옆면 벽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천장의 판넬 중 하나에 그려진 아주 기묘한 형상이 내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것은 흔히 묘사되는 '시간'의 모습이었다. 다만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의 신이 낫 대신 무언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오래된 시계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진자의 모습 같았다.

하지만 그 기계의 생김새에는 나를 더 주의 깊게 살피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내 머리 바로 위에 있었기에 나는 그것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마치 그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 환상은 현실로 확인되었다. 기계는 짧은 궤적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에 젖어 몇 분 동안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 단조로운 움직임을 지

켜보는 것이 지루해지자, 나는 시선을 돌려 감옥 안의 다른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작은 소음이 내 주의를 끌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거대한 쥐 여러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쥐들은 바로 오른쪽 시야에 들어오는 우물 안에서 기어 나온 것이었다. 내가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에도, 쥐들은고기 냄새에 이끌려 굶주린 눈빛을 번뜩이며 무리 지어 급히 몰려들었다. 쥐들을 쫓아버리려면 상당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했다.

다시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기까지 30분, 어쩌면 한 시간쯤 지났을지도 모른다. 시간 감각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나를 경악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진자의 궤적이 거의 1야드 가까이 더 넓어져 있었다. 당연히 속도 또한 훨씬 빨라져 있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진자가 눈에 띄게 아래로 내려왔다는 사실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공포에 질린 채 확인한 진자의 끝부분은, 양 끝의 뿔 사이 거리가 약 1피트에 달하는 초승달 모양의 번뜩이는 강철이었다. 뿔은 위를 향해 솟아 있었고, 아래쪽 날은 분명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모양새는 면도날처럼 묵직하고 무거워 보였으며, 날 부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단단하고 넓은 구조로 점차 굽어졌다. 진자는 육중한 황동 막대에 매달려 있었고, 공중을 가르며 흔들릴 때마다 쇠뿔끼는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랐다.

고문 기술을 부리는 수도사들의 기괴한 지혜가 나를 위해 어떤 파멸을 준비했는지,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구덩이의 존재

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종교재판소 요원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나처럼 대담하게 신앙을 거부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공포, 바로 그 구덩이 말이다. 그 구덩이는 지옥의 전형이었으며, 소문에 따르면 종교재판소가 내리는 모든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끝판왕과도 같은 곳이었다.

나는 아주 우연한 계기 덕분에 그 구덩이로 추락하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죽음들은 대부분 기습하거나 함정에 빠뜨려 고통을 주는 방식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는 데 실패했으니, 악마 같은 그들의 계획대로 나를 심연 속으로 내던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들은, 대신 조금 더 완만한 방식의 파멸을 나에게 준비했다.

완만하다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꼴을 생각하니, 고통 속에서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 강철 칼날이 내뿜는 격렬한 진동을 세며 버텨야 했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길고 긴 공포의 시간들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칼날은 한 치씩, 한 줄씩 내려왔다. 그 하강은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는 간격을 두고서야 겨우 그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칼날은 계속해서, 끝없이 아래로 내려왔다.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 어쩌면 수많은 날이 흘렀는지도 모른다. 칼날이 내 몸 바로 위를 스치며 그 매캐한 숨결을 내뿜을 때까지 말이다. 날카로운 강철에서 풍기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기도했다. 차라리 빨리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늘이 지칠 정도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나는 미친 듯이 발악하며, 그 공포스러운 곡도(scimitar)의 움직임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려 몸부림쳤다. 그러다 문득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진귀한 장난감을 바라보듯, 번뜩이는 죽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누워 있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이어졌다. 다행히 그 시간은 짧았다.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진자가 내려온 높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주 길었을 수도 있었다. 내가 기절한 것을 지켜보며, 원하기만 하면 진자의 움직임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악마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정신을 차린 뒤에도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몹시 쇠약하고 기운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몸이 축 처졌다.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인간의 본능은 음식을 갈구했다. 나는 결박된 팔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왼쪽 팔을 뻗었다. 그리고 쥐들이 남겨둔 작은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냈다.

그것을 입에 넣으려는 찰나, 기쁨과 희망이 뒤섞인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나 같은 처지에 희망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앞서 말했듯, 그것은 미처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생각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며 이처럼 채 완성되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을 품곤 한다. 나는 그것이 기쁨과 희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그 생각을 붙잡아 다시 떠올리려 애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오랜 고통은 나의 정신적 능력을 거의 송두리째 앗아갔다. 나는 그저 멍청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불과했다.

진자의 진동은 내 몸의 길이와 직각을 이루며 움직였다. 저 초승달 모양의 칼날은 심장 부근을 가로지르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칼날은 내 가운의 서지 천을 헤집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것이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이다. 칼날이 휩쓸고 지나가는 궤적은 무려 30피트(약 9미터) 이상으로 무시무시하게 넓었고, 저 철제 벽마저 부술 듯한 기세로 싹싹 소리를 내며 낙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날이 내 가운을 헤집어 놓는 것 외에 당장 몇 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터였다.

그 생각이 들자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더는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다. 나는 마치 그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저 강철의 낙하를 멈출 수 있길라도 한 듯, 그 공포스러운 상상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나는 칼날이 옷감을 스치며 지나갈 때 널 소리를, 그리고 옷감의 마찰이 신경에 전달할 그 기묘하고도 떨리는 감각을 억지로 떠올리려 애썼다. 나는 이 하찮고도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이가 시릴 지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되새겼다.

내려갔다. 그것은 끊임없이 아래로 기어 내려갔다. 나는 그것이 수직으로 하강하는 속도와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를 대조하며 광기 어린 즐거움을 느꼈다.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멀리, 그리고 넓게! 마치 저주받은 망령의 비명처럼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굶주린 호

량이 살금살금 다가오듯 내 심장을 향해 좁혀왔다.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머릿속을 지배할 때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이내 울부짖기를 반복했다.

내려온다. 분명히, 무자비하게 내려온다! 진자가 내 가슴팍에서 불과 3인치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왼팔을 빼내려고 필사적으로,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하지만 팔꿈치 아래쪽만 겨우 자유로운 상태였다. 옆에 놓인 쟁반에 있는 물건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것 정도는 온 힘을 다하면 가능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 만약 팔꿈치 윗부분의 결박을 풀 수만 있었다면, 나는 진자를 붙잡아 멈추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 한들, 쏟아지는 눈사태를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짓이었을 터다!

내려간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피할 길 없는 추락이 계속된다!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부림쳤다. 칼날이 휘둘러질 때마다 나는 경련하듯 몸을 움츠렸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절망에 사로잡힌 채, 나는 그 칼날이 바깥쪽이나 위쪽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간절히 쫓았다. 칼날이 다시 내려올 때면 눈을 경련하듯 질끈 감아버렸다. 차라리 죽음이 안식이 될 텐데, 오,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식이었을까! 기계가 아주 조금만 더 내려가도 저 날카롭고 번뜩이는 도끼날이 내 가슴을 내리칠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의 신경이 떨려왔다. 신경이 떨리고 몸이 움츠러드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희망 때문이었다. 고문대 위에서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바로 그 희망 말이다.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 갇힌 사형수에게조차 속삭이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나는 떨고 있었다.

열 번이나 열두 번 정도 진동이 반복되면 강철 날이 내 옷에 직접 닿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날카롭고도 차분한 평온함이 갑자기 내 영혼을 엄습했다. 수 시간, 어쩌면 수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문득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붕대, 아니 가죽 끈이 아주 독특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묶고 있는 별도의 끈은 없었다. 만약 면도날 처럼 날카로운 초승달 모양의 칼날이 이 끈의 어느 한 부분을 스치기만 해도, 끈이 잘려 나가면서 왼손으로 내 몸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강철 날이 내 몸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겠는가! 그 상황에서 아주 작은 몸부림이라도 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일 것인가! 게다가 고문 기술자들의 수하들이 이런 가능성까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았을 리 없었다. 설마 이 가죽 끈이 진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가로질러 내 가슴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희미하고, 보아하니 마지막일 그 희망마저 꺾일까 두려웠던 나는, 내 가슴팍을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들어 올렸다. 가죽 끈은 파괴적인 칼날이 지나가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내 몸과 사지를 모든 방향에서 빈틈없이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고개를 원래대로 뒤로 젖히자마자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생각은 앞서 언급했던 구원의 개념이 채 형체를 갖추기 전의 상태와 같았다. 타오르는 입술에 음식을 가져다 대던 순간에는 그저 막연한 조각만이 뇌리를 떠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비록 희미하고 불완전하며 갈피를 잡기 어려울지언정, 비로소 온전한 형

태를 갖추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동력 삼아, 즉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내가 누워 있는 낮은 틀 주변에는 수 시간 동안 쥐들이 떼 지어 몰려 들었다. 쥐들은 거칠고 대담했으며, 굶주림에 미쳐 있었다. 놈들의 붉은 눈은 마치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가 곧장 잡아먹으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 구덩이 안에는 대체 어떤 먹이가 있기에 저토록 익숙해진 것일까.'

내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접시에 담긴 음식 대부분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접시 위에서 손을 앞뒤로 흔들며 음식을 쫓아내던 내 동작은 어느덧 습관적인 몸짓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무의식적인 반복 때문에 더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굶주린 벌레들은 먹이를 탐하느라 수시로 내 손가락을 날카로운 송곳니로 물어뜯었다. 나는 접시에 남은 기름지고 매콤한 음식 부스러기들을 손이 닿는 대로 붕대 위에 골고루 문질러 발랐다. 그러고는 바닥에서 손을 들어 올린 채, 숨을 죽이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움직임이 멈춘 변화에 깜짝 놀라 공포에 질렸다. 짐승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많은 수가 구덩이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아주 잠시뿐이었다. 짐승들의 탐욕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놈들 중, 가장 대담한 한두 마리가 나무 틀 위로 뛰어올라 가죽 끈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이 신호라도 된 듯 짐승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다. 구덩이 속에서 새로운 무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놈들은 나

무 틀에 매달리고 그 위를 뒤덮더니, 수백 마리가 내 몸 위로 뛰어들었다. 진자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놈들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다. 놈들은 진자의 칼날을 피하며 기름을 바른 봉대에만 정신을 쏟았다. 놈들은 내 몸 위로 점점 더 높이 쌓여가며 나를 압박하고 에워쌌다. 짐승들이 내 목을 조여왔고, 차가운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아 헤맸다. 놈들이 밀려드는 압박감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고, 무겁고 끈적한 불쾌감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1분만 더 버티면 이 사투가 끝날 것임을 직감했다. 봉대가 느슨해지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 이미 여러 곳이 끊어졌으리라는 확신도 들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력을 발휘하며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고, 인내 또한 헛되지 않았다. 마침내 자유가 찾아왔음을 느꼈다. 몸을 조이던 가죽 끈은 갈기갈기 찢겨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진자의 칼날은 이미 내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진자는 내 겹옷의 서지 천을 갈랐고, 그 아래 입은 리넨 셔츠까지 베어 넘겼다. 진자가 다시 두 번을 더 휘둘러 지나갈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 신경을 찢었다. 그러나 탈출의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다. 내가 손을 흔들자, 나를 구해준 것들은 소란스럽게 서둘러 물러났다. 나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몸을 움츠리며 옆으로 비껴나갔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옥죄던 봉대와 칼날의 사정권 밖으로 몸을 미끄러뜨리듯 빠져나왔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자유였다.

자유라고? 종교재판소의 손아귀에 붙들린 채 말이다! 공포에 질려 나무 침대에서 내려와 감옥의 돌바닥을 밟자마자, 그 지옥 같은 기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러더니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기계가 천장 너머로 끌려 올라갔다. 나는 이 상황을 뼈저리게 새겼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분명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자유라니! 나는 그저 한 형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면했을 뿐, 다른 형태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에 던져진 것에 불과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나를 가둔 철창 사이로 초조하게 눈을 굴렸다. 방 안에 무언가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겼음이 분명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몽롱하고 떨리는 정신으로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연관성 없는 추측만 하며 헛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나는 처음으로 이 감옥을 밝히는 유황빛 광원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빛은 벽면 하단, 즉 바닥과 완전히 분리된 벽의 밑부분을 따라 감옥 전체를 둘러싸며 길게 난 약 0.5인치의 틈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틈 사이를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시도를 멈추고 몸을 일으키자, 방 안의 모습이 왜 변했는지 그 수수께끼가 단번에 이해되었다. 벽에 그려진 형상들의 윤곽은 충분히 뚜렷했지만, 색채만큼은 흐릿하고 불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을 나는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 색채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하고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빛 때문에 유령 같고 악마적인 초상화들은, 나보다 더 담대한 사람조차 전율케 할 만큼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천 개의 방향에서, 광기 어린 생동감을 머

금은 악마의 눈들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들은 도저히 환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불길하고도 번뜩이는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숨을 쉴 때마다 뜨겁게 달궜진 철의 증기가 코끝을 찔렀다.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감옥 안을 가득 채웠다. 나의 고통을 지켜보는 눈동자 속에는 더욱 짙은 빛이 서렸고, 피로 물든 참혹한 광경 위로 더욱 진한 선흥빛이 번져 나갔다. 나는 혈떡이며 필사적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나를 고문하는 자들의 의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오, 저들은 참으로 무자비하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임이 틀림없다!

나는 달궜진 금속을 피해 감옥 중앙으로 몸을 움츠렸다. 곧 닥쳐올 화염의 파멸을 생각하니, 구덩이 속의 서늘함이 마치 영혼을 달래는 향유처럼 느껴졌다. 나는 죽음이 기다리는 구덩이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타오르는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내 정신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침내 그 진실이 내 영혼을 파고들어 사투를 벌였고, 떨리는 이성 위에 낙인처럼 깊게 새겨졌다. 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말을 해다오! 오, 공포여! 차라리 다른 어떤 공포라도 좋으니 이것만은 아니기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물러나 두 손에 얼굴을 묻고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열기가 급격히 치솟았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 마치 오한이 닥친 듯 몸을 떨었다. 감옥에 두 번째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눈에 띄게 형태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

는지 파악하거나 이해하려 애써 보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의구심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내가 두 번이나 탈출에 성공한 탓에 종교재판소의 복수심이 더욱 빨라진 모양이었다. 공포의 왕과 더는 지루한 밀당을 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방은 원래 정사각형이었다. 그런데 이제 철제로 된 네 모서리 중 두 곳은 예각이 되었고, 나머지 두 곳은 둔각으로 변해 있었다. 낮게 울리는 웅성거림 혹은 신음 같은 소리와 함께, 그 무시무시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순식간에 방의 형태는 마름모꼴로 바뀌었다. 하지만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변화가 멈추기를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저 붉은 벽을 영원한 평화의 옷처럼 가슴에 꼭 끼안을 수만 있다면 좋으리라 생각했다.

"죽음이라도 좋다!" 나는 외쳤다. "저 구덩이 속에서 죽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저 달궈진 철판이 나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단 말인가? 그 뜨거운 열기를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설령 열기를 견딘다 한들, 밀어붙이는 압력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마름모꼴의 방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점점 더 납작해졌다. 방의 중심부, 즉 가장 넓은 부분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는 심연 바로 위로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조여드는 벽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계속 밀어붙였다. 결국 화상을 입고 뒤틀리는 내 몸을 지탱할 단단한 바닥은 한 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

았다. 다만 영혼의 고통을 담아 절망 섞인 비명을 길고 크게 내질렀을 뿐이다. 나는 내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느꼈다. 나는 눈을 돌려버렸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루며 웅성거렸다! 수많은 나팔이 울려 퍼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천둥이 수천 번 몰아치는 듯한 거친 마찰음이 들려왔다! 불타는 듯한 벽들이 뒤로 물러났다! 정신을 잃고 심연 속으로 추락하던 찰나, 누군가의 팔이 내 팔을 붙잡았다. 라 살 장군이였다. 프랑스군이 톨레도에 입성했다. 종교재판소는 적들의 손에 떨어졌다.